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지식인 청년의 내면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04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작품은 1942년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에 쓴 시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다짐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어휘 풀이]

- 옥첩방 일본식 돛자리인 다다미 여섯 장을 깔아 놓은 작은 방.

[작가 소개]

윤동주(1917~1945)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서시」, 「별 헤는 밤」 등이 있으며, 유고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

학습 활동

작품 속으로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

1. 이 작품의 내용을 시상 전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2연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자각함.
3~7연	
8~10연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시어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 이해하기

1.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이해해 보자.

등불	
어둠	
아침	

- 이 작품의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까닭을 말해 보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까닭
